

# 청소년 초기의 신체상 태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Attitude and Its Correlates in Early Adolescence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정윤주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Assistant Professor : Yun Joo Chyu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attitudes and their correlates in early adolescence. The participants were 614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dolescents' body image evaluation, body image investment, body mass index, depressio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er influence, and awareness of media messages regarding physical appearance,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parents' influence, peer influence, and awareness of media messages regarding physical appearance between adolescents with higher body image investment and those with lower body image investment, and 3) Awareness of media messages regarding physical appearance w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of adolescents' body image investment.

**주제어(Key Words)** : 체질량지수(BMI), 자아존중감(self-esteem), 우울(depression)  
사회문화적 영향(sociocultural influences), 신체상태도(body image attitudes)

**Corresponding Author** : Yun Joo Chyung,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12-1 Songdo-dong, Yeonsu-gu, Incheon, 406-772, Korea Tel: +82-32-835-8251 Fax: +82-32-835-8250 E-mail: ychjung@incheon.ac.kr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7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청소년 초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되어 가는 시기로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며 수용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발달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영역은 성장급등과 이차성징의 발달로 청소년 초기에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데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은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요소인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isher, 1990).

신체상은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Harter, 1993), 개인의 삶의 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ruzinsky & Cash, 2002). 예를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갑숙, 강연정, 2007; 박지현, 최태산, 2008; Kostanski & Gullone, 1998),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자신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이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그와 관련된 수치감을 경험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여 정신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 Kent, 200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개인의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돌봄, 지원, 수용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Gilbert, 2002) 인간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가능한 한 많이 지니고자 하며 신체적 외모도 그러한 특성 중 하나라는 것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신체적 외모는 성격이나 능력 등 인간의 다른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 안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구성원들의 가치 인정 여부에 의해 그 영향력이 좌우된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외모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지각하고 평가하게 된다(Gilbert, 2002). 이와 같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어 소속 집단에서의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 있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지나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모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인정받는 데 중요한

정도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데 최근 한국은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모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김영지 외, 2008)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연구대상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에서 외모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한국 사회는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외모를 매우 중요시 하며 그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외모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심화되면서 개인이 외모에 대해 갖는 관심이 높아지며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사회적으로 이상이라 여겨지는 모습에 가깝게 자신의 외모가 달라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모두 그러한 현상인데 이러한 경향은 성인은 물론이고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이 전국의 중고교생 5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1%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2007)가 12~18세 청소년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는 청소년의 비율이 1998년에는 34.4%, 2001년은 36.7%, 2005년에는 43.8%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중조절을 하는 이유로는 여자 청소년의 83.3%가 균형 있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체중조절을 한다고 한 남학생의 59.8%, 여학생의 65.3%가 식사조절(식사량 줄이기, 식단조절, 혹은 단식)을 통해 체중을 줄이려고 한다고 보고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모가 매우 중요하며 건강에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일반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체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니는 것은 어떤 연령에서나 바람직하지 않지만 청소년기의 부정적 신체상 평가는 성인기에서보다 더욱 우려해야 할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부정적 신체상 평가는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Stice, 2002), 정서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서 우울증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ice & Shaw, 2003). 특히 청소년 초기에 지속적으로 신체에 대해 불만족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성인기까지도 부정적 정서를 높은 정도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ring, Graber, & Brooks-Gunn, 2002). 이처럼 청소년기 초기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지니는 것은 정서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서 부정적인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고 그것이 외모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정신건강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외모가 개인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체상 투자(body image investment)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체상 투자는 개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일컫는다(Cash, 2002). 신체상 투자는 신체적 외모에 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기억하게 하며 활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Cash, Melnyk, & Hrabosky, 2004; Hargreaves & Tiggemann, 2003)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체상 투자는 신체상 평가와 함께 신체상 관련 연구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Pruzinsky & Cash, 2002). 신체상 연구의 인지행동적 모델은 신체상 관련 행동이나 정서에 인지적 요인이 선행된다는 점과 인지적 요인은 사회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체상 태도(body image attitudes)가 그러한 인지적 요소로서 신체상 투자(investment)와 신체상 평가(evaluation)를 포함한다고 한다(Cash, 2002). 신체상 투자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외모가 중요함을 일컫으며 신체상 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 정도를 일컫는다. 신체상 투자는 이상섭식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선, 오경자, 2004), 섭식장애 환자나 체중감소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나 체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더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cFarlane, McCabe, Jarry, Olmsted, & Polivy,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그러한 요인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신체상 투자 정도가 클수록 신체상과 관련되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연구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근거하여 신체상 평가(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신체상 투자를 알아보고자 한다. 신체상에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이 부정적인 신체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을 주로 다루었으며 신체상 평가가 형성되는데 관여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관련 인지적 요인으로서 신체상 투자를 사회문화적 변수 및 심리적 변수와 함께 신체상 평가에 대한 예측 변수로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체상 투자가 형성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지행동적 모델에서 예측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체적 특징,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대인경험, 문화사회화)이 신체상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상 투자 및 신체상 평가와 관련된 신체적 특징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BMI)를 선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에 근거해 산출되며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이다. 선행연구들(이수현, 현명호, 2001; 조영미, 2005; Sands & Wardle, 2003; Stice & Whitenton, 2002)에서 체질량지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정적 신체상 평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질량지수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신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Burrows & Cooper, 2002; Davison & Birch, 2002).

신체상 투자 및 신체상 평가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신체불만족이나 신체를 변화시키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Ricciardelli & McCabe, 2001).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체중조절 행동이나 이상 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Button, Loan, Davies, & Sonuga-Barke, 1997; Furnham & Calman, 1998; Lawrence & Thelen, 1995)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체상 투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여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이 신체상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관련 영역의 연구 결과들로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신체상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 초기의 체중조절 의사 및 체중에 대한 염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cCabe & Ricciardelli, 2003) 이런 연구결과는 우울과 부정적인 인지적 편향 간의 관련성(권석만, 2003)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울한 청소년은 인지적 편향에 따라 자기 신체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정보에도 더욱 민감하며(Cash, 2002) 신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념도 강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신체상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며 우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아존중감도 신체상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신체상 태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는 우선 대인경험으로서 부모와 친구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와 친구는 청소년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이므로 신체상과 관련하여 이들이 지니는 사고, 행동, 감정이 청소년

년에게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와 친구는 날씬함과 매력 있는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견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상과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ne & Smolak, 2001; Phares, Steinberg, Thompson, 2004), 부모와 친구가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n 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Wertheim, Paxton, & Blaney, 2004).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접하게 되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신체상 투자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신체상 태도에 또래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부모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Shroff & Thompson, 2006)도 있어 부모와 친구가 청소년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체상 태도와 관련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문화사회화 변수로는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TV나 잡지에서 날씬한 사람들의 모습, 다이어트, 운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할수록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상 평가가 더욱 부정적이고 체중 감소 행동도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숙, 이미숙, 2001; 장희순, 김태련, 2006; Gowers & Shore, 2001; Groesz, Levine, & Murnen,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중매체에서 외모와 관련하여 전달하는 메시지가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이상적인 외모가 청소년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신체상 평가 뿐만 아니라 신체상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서술한 변수들을 다루면서 성차도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상에 관한 연구들은 외모의 문제가 문화적으로 남성 보다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대체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부정적 신체상 평가는 성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성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 기술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관계에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라 체질량지수와 상관 없이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 관심도 지각,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에 대한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 관심도 지각,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총 733명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 후 회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614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52.6%(323명), 여자가 47.4%(291명)이었고,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18.2%(112명), 초등학교 6학년이 19.2%(118명), 중학교 1학년이 19.1%(117명), 중학교 2학년이 23.6%(145명), 중학교 3학년이 19.9%(122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1.8%(11명), 3.3%(20명)이었고, 고졸이 39.6%(243명), 전문대졸이 5.4%(33명), 대졸 이상이 50.3%(309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1.5%(9명), 2.9%(18명)이었고, 고졸이 58.3%(358명), 전문대졸이 2.6%(16명), 대졸 이상이 34.4%(211명)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응답 청소년들의 지각은 매우 어렵다 0.7%(4명), 어렵다 7.2%(44명), 보통이다 60.6%(372명), 넉넉하다 25.9%(159명), 매우 넉넉하다 5.7%(35명)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응답 청소년이 질문에 기록한 체중과 키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산출 공식은 체중(kg)/키(m)<sup>2</sup>이다.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24.9이면 정상체중,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한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심승원(2001)이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

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0점부터 5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적어도 다른 아이들만큼은 가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3) 우울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을 정안숙(2003)의 번안을 참고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임상적 상황에서 우울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았다.’, ‘울고 싶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4)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은 아버지, 어머니, 친구가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청소년이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부모의 외모관심도 지각

부모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신체상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Tripartite Influence Scale (Keery, van den Berg, & Thompson, 2004)의 아버지 영향 척도와 어머니 영향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아버지 문항과 어머니 문항이 6개씩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아버지 척도와 어머니 척도 각각 6점부터 3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이 많다고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빠(엄마)는 날씬한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아빠(엄마)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 등이다. 아버지 척도와 어머니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4와 .80이었다.

(2) 친구의 관심도 지각

친구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The Perceived Friend Preoccupation with Weight and Dieting Scale (Schutz, Paxton, & Wertheim, 2002)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체중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해 친구들의 관심이 많다고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내 친구들의 몸무게나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 친구들은 서로의 몸무게와 몸매에 관심이 많다.’ 등이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5)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신체상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Tripartite Influence Scale (Keery, van den Berg, & Thompson, 2004)의 대중매체 영향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점부터 2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외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보면 외모가 중요한 것 같다.’,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보면 나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6) 신체상 태도

신체상 태도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인 신체상 평가와 외모가 사회적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신체상 투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신체상 평가

신체상 평가는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를 본 연구자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2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24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신체상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좋다’, ‘나는 내 외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 등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 (2) 신체상 투자

신체상 투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변안한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molak, Levine, & Thompson, 2001)의 하위척도인 ‘외모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문화적으로 외모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7점부터 35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등이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 3. 자료 분석

회수된 질문지 733부 중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된 614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편상관계 분석, 일원공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614)

변수	평균(표준편차)		
	남(n = 323)	여(n = 291)	전체
체질량지수	19.82(3.51)	18.77(2.66)	19.32(3.18)
자아존중감	33.94(6.24)	32.87(6.94)	33.44(6.60)
우울	38.13(10.57)	40.58(12.20)	39.29(11.43)
아버지의 외모관심도	9.99(4.56)	10.46(4.71)	10.21(4.64)
어머니의 외모관심도	11.76(4.79)	12.92(5.03)	12.31(4.93)
친구의 외모관심도	15.63(7.31)	20.50(7.65)	17.94(7.85)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8.12(3.84)	11.52(4.82)	9.73(4.65)
신체상 평가	10.68(4.46)	13.27(5.15)	11.91(4.96)
신체상 투자	14.09(5.97)	17.93(6.17)	15.91(6.36)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상관관계 및 상관관계의 성차

우선,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객관적인 체형상태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신체상 평가 및 신체상 투자와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로 각각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남녀 청소년 전체의 자료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영차상관(zero-order correlation)계수(대각선 상부 윗줄 제시)를 살펴보면, 신체상 평가는 신체상 투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 = .304, p < .01$ )를 나타내었다.

즉 청소년이 사회문화적으로 외모가 중요하다고 믿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신체상 평가는 체질량지수( $r = .209, p < .01$ ), 자아존중감( $r = -.477, p < .01$ ), 우울( $r = .357, p < .01$ ), 아버지( $r = .256, p < .01$ )와 어머니( $r = .302, p < .01$ ) 및 친구( $r = .198, p < .01$ )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지각,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r =$

.379,  $p < .01$ )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청소년이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이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외모를 중요시하는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상 투자도 자아존중감( $r = -.047, n.s.$ )을 제외하고는 체질량지수( $r = .120, p < .01$ ), 우울( $r = .312, p < .01$ ), 아버지( $r = .345, p < .01$ )와 어머니( $r = .392, p < .01$ ) 및 친구( $r = .518, p < .01$ )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r = .702, p < .01$ )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외모가 중요하다는 대중매체 메시지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외모가 사회적 수용과 인정을 얻는데 중요하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질량지수를 통제하고 산출한 편상관계수(대각선 상부 아랫줄 제시)도 영차상관계수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체상 평가는 신체상 투자, 자아존중감, 우울, 아버지와 어머

니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 유의미한 편상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신체상 평가와 자아존중감 간의 편상관계수만 영차상관계수보다 높았으며 신체상 평가와 나머지 다른 변수들 간의 편상관계수는 모두 영차상관계수보다 다소 낮았다. 신체상 투자도 자아존중감 이외의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편상관계를 보였으며 편상관계수는 모두 영차상관계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신체상 평가 및 신체상 투자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체질량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대체로 다소 작아졌으나 관계의 방향은 변수 통제 없이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성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집단 각각에 대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의 대각선 하부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신체상 투자와 신체상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남자( $r = .184, p < .01$ )보다 여자집단( $r = .302, p < .01$ )에서 더 높았다. 즉 외모가 사회적 수용과 인정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

<표 2>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상관관계 및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편상관계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 지수	자아 존중감	우울	아버지 외모 관심도	어머니 외모 관심도	친구 외모 관심도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신체상 평가	1.00 1.00	.304** .288**	.209** -	-.477** -.487**	.357** .354**	.256** .213**	.302** .253**	.198** .189**	.379** .352**
신체상 투자	.184** .302**	1.00 1.00	.120** -	-.047 -.047	.312** .308**	.345** .327**	.392** .376**	.518** .515**	.702** .697**
체질량지수	.268** .273**	.192** .169**	1.00 1.00	-.005 -	.054 -	.262** -	.325** -	.066 -	.197** -
자아 존중감	-.459** -.487**	-.044 -.004	-.036 -.003	1.00 1.00	-.405** -.405**	-.115** -.117**	-.127** -.133**	-.037 -.037	-.085* -.086*
우울	.275** .399**	.304** .288**	.151** -.022	-.276** -.507**	1.00 1.00	.214** .207**	.241** .236**	.230** .227**	.283** .278**
아버지의 외모관심도	.291** .216**	.283** .411**	.355** .168**	-.181** -.043	.229** .193**	1.00 1.00	.697** .670**	.363** .359**	.422** .391**
어머니의 외모관심도	.285** .282**	.353** .400**	.403** .293**	-.130* -.108	.287** .180**	.740** .651**	1.00 1.00	.365** .364**	.429** .394**
친구의 외모관심도	.092 .160**	.429** .509**	.201** .021	-.018 -.008	.218** .199**	.347** .385**	.421** .273**	1.00 1.00	.620** .621**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266** .354**	.587** .740**	.354** .215**	-.099 -.029	.267** .261**	.499** .382**	.501** .351**	.592** .561**	1.00 1.00

주. 대각선 상부 각 셀의 윗줄은 영차상관(zero-order correlation)계수, 아랫줄은 체질량지수를 통제하고 산출된 편상관(partial correlation)계수임.

주. 대각선 하부 각 셀의 윗줄은 남자청소년의 영차상관계수, 아랫줄은 여자청소년의 영차상관계수임.

\* $p < .05$ , \*\* $p < .01$

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는 여자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아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모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에 의해 더 많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 평가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아버지의 외모관심도 지각과의 관계만 여자( $r = .216, p < .01$ )보다 남자( $r = .291, p < .01$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체질량지수와와의 관계(남:  $r = .268, p < .01$ ; 여:  $r = .273, p < .01$ ),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남:  $r = -.459, p < .01$ ; 여:  $r = -.487, p < .01$ ), 우울과의 관계(남:  $r = .275, p < .01$ ; 여:  $r = .399, p < .01$ ), 어머니의 외모관심도 지각과의 관계(남:  $r = .285, p < .01$ ; 여:  $r = .282, p < .01$ ),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과의 관계(남:  $r = .092, n.s.$ ; 여:  $r = .160, p < .01$ ),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의 관계(남:  $r = .266, p < .01$ ; 여:  $r = .354, p < .01$ )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체형, 자아존중감, 우울, 어머니의 외모관심도 지각,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정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한편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외모 평가에서 아버지의 외모관심도 지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 투자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체질량지수와의 관계(남:  $r = .192, p < .01$ ; 여:  $r = .169, p < .01$ ), 우울과의 관계(남:  $r = .304, p < .01$ ; 여:  $r = .288, p < .01$ )는 여자보다 남자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외모관심도 지각과의 관계(남:  $r = .283, p < .01$ ; 여:  $r = .411, p < .01$ ), 어머니의 외모관심도 지각과의 관계(남:  $r = .353, p < .01$ ; 여:  $r = .400, p < .01$ ),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과의 관계(남:  $r = .429, p < .01$ ; 여:  $r = .509, p < .01$ ),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의 관계(남:  $r = .587, p < .01$ ; 여:  $r = .740, p < .01$ )는 남자보다 여자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체질량지수와 우울은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 집단에서 외모를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버지, 어머니, 친구가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도나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인식하는 정도는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 집단에서 외모를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른 신체상 평가,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 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차이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라 신체상 평가, 자아존중감, 우울, 아버지와 어머니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

〈표 3〉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른 신체상 평가,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의 차이

변수	신체상투자		F
	낮음(SD) (n = 319)	높음(SD) (n = 295)	
신체상 평가	11.03 (4.64)	12.86 (5.13)	16.81**
자아존중감	33.66 (6.69)	33.20 (6.51)	.73
우울	36.76(10.64)	42.03(11.63)	32.88**
아버지 외모관심도	9.19 (3.94)	11.32 (5.07)	26.81**
어머니 외모관심도	11.02 (4.45)	13.70 (5.06)	39.36**
친구 외모관심도	15.42 (6.83)	20.67 (7.99)	74.29**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7.49 (3.57)	12.16 (4.48)	193.18**

참고. 체질량지수가 공변량으로 설정되어 통제되었음.  
\*\* $p < .01$

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상 투자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고 체질량지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일원공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편상관계수가 영차상관계수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체질량지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통제함으로써 신체상 태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련성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F = 16.81, p < .01$ ), 우울( $F = 32.88, p < .01$ ), 아버지( $F = 26.81, p < .01$ )와 어머니( $F = 39.36, p < .01$ ) 및 친구( $F = 74.29, p < .01$ )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F = 193.18, p < .01$ ) 정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자아존중감은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신체상 투자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실제 체질량지수와 무관하게 자신의 외모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고,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지각하며, 외모와 관련된 대중매체 메시지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3.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에 대한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 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의 영향력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에 대한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어머니, 아버지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

〈표 4〉 남자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에 대한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sub>B</sub>	β	t
<b>1단계</b> ( $R^2 = .03$ )				
체질량지수	.33	.09	.19	3.50**
<b>2단계</b> ( $R^2 = .37$ )				
체질량지수	-.06	.08	-.04	-.74
자아존중감	.05	.05	.05	1.01
우울	.09	.03	.16	3.29**
부의 외모관심도	-.12	.09	-.09	-1.35
모의 외모관심도	.13	.09	.11	1.52
친구의 외모관심도	.08	.05	.09	1.67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78	.09	.49	8.14**

\*\* $p < .01$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체질량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과 키에 근거해 산출된 것으로서 외모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성격을 지니므로 그 외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상 투자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므로 위계적 회귀분석도 남녀 집단에 각각 실시하였다. 남자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여자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자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체질량지수는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 $\beta = .19, p < .01$ )로서 약 3%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이 추가로 투입되어 약 37%의 변량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관련 심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투입되자 체질량지수는 더 이상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아니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들 중에서도 우울( $\beta = .16, p < .01$ )과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beta = .49, p < .01$ )만 신체상 투자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여자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체질량지수는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 $\beta = .17, p < .01$ )로서 약 3%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아버지, 어머니,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이 추가로 투입되어 약 58%의 변량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외모관련 심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표 5〉 여자 청소년의 신체상 투자에 대한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sub>B</sub>	β	t
<b>1단계</b> ( $R^2 = .03$ )				
체질량지수	.39	.13	.17	2.92**
<b>2단계</b> ( $R^2 = .58$ )				
체질량지수	-.01	.09	-.01	-.02
자아존중감	.08	.04	.10	2.13*
우울	.07	.02	.13	2.82**
부의 외모관심도	.06	.07	.05	.90
모의 외모관심도	.15	.06	.12	2.31*
친구의 외모관심도	.08	.04	.10	2.11*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76	.06	.59	12.04**

\*\* $p < .01$

나타내는 변수들이 투입되자 남자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체질량지수는 더 이상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아니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아버지의 외모관심도 지각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자아존중감( $\beta = .10, p < .01$ ), 우울( $\beta = .13, p < .01$ ), 어머니( $\beta = .12, p < .01$ )의 외모관심도 지각,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beta = .10, p < .01$ ),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beta = .59, p < .01$ )이 신체상 투자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상 관련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신체상 평가와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신체상 평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수인 신체상 투자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체상 평가는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질량지수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을 많이 경험하고, 부모나 친구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고,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는 대중매체 메시지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불만족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장

희순, 김태련, 2006; 조영미, 2005; Ricciardelli & McCabe, 2001; Sands & Wardle, 2003; Vander Wal & Thelen, 2000)에서 보고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개인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지인 신체상 투자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체질량지수,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질량지수가 높고, 우울을 많이 경험하며, 부모 및 친구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고,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 투자는 신체상 평가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 청소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로서 유사한 결과를 선행연구(이상선, 오경자, 2005; Hargreaves & Tiggemann, 2002)의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는 신체상 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이 신체상 투자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신체상 투자와 신체상 평가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이 신체상 평가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체상 투자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부정적 신체상과 이상 섭식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적 모델(Striegel-Moore & Cachelin, 1999)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정적 신체상과 이상 섭식행동은 두 개의 경로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하나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내재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상과 사회적 능력 문제에서 기인하는 자아효능감 부족과 관련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이 낮음으로써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신체상 투자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러한 기준을 내재화 하는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신체상 투자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신체상 투자,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 외모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간의 편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신체상 투자 및 신체상 평가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체질량지수를 통제하기 전과 후에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청소년의 인식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청소년 자신의 심리적 특성, 외모의 중요성에 관한 대인경험과 대중매체에서 전달하

는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객관적인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객관적 비만도보다는 자신의 비만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부정적인 신체상 평가나 이상 섭식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김갑숙, 강연정, 2007; 조성은, 2004; Kostanski & Gullone, 1998)들과 맥을 같이 한다. 개인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정 유형의 외모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신체상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신체상 태도 형성에는 신체적인 외모와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이 함께 작용하므로 신체상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체상 투자 및 신체상 평가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남녀 청소년 각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친구의 외모관심도와 신체상 평가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신체상 투자, 신체상 평가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에는 남녀 차이가 있지만 관계의 방향은 남녀 차이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의 정도에 대해 남녀 집단을 비교해보면, 우울과 신체상 투자 간의 상관관계는 남자 집단에서 더 높았고, 부모 및 친구의 외모 관심도,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 신체상 투자 간의 상관관계는 여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 즉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가 컸다. 반면에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나 외모가 중요하다는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 정도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 있어서 자기 평가에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신체상 투자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심리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외모 관련 대인경험이나 사회문화적 압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외모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Grogan, 2006) 부모나 친구의 외모에 대한 강조나 대중매체에서 특정 유형의 외모를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며 외모를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 지적 틀이 더욱 굳어지게 됨을 시사한다.

신체상 평가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친구의 외모 관심도 지각,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과 신체상 평가 간의 상

관관계는 여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적 모습을 평가할 때 신체상과 관련된 대인경험이나 대중매체 메시지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에 더 민감하며(Keery, van der Berg, & Thompson, 2004; Ricciardelli & McCabe, 2001)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전반적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적 경험이 더 많이 좌우되는 경향(Keel, Fulkerson, & Leon, 1997)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의 외모관심도와 신체상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남자 집단에서 더 높았고 친구의 외모관심도 지각은 남자 집단에서는 신체상 평가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외모관심도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의 태도나 행동이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자녀의 신체상 관련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머니는 체중조절에 관해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는 체중조절보다는 근육을 기르는 것에 관해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Ricciardelli & McCabe, 2001)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자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상 투자와 신체상 평가 간의 관계는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외모의 중요도 인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불만족하는 정도가 더 많이 좌우됨을 나타낸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가족, 친구, 대중매체를 통해 외모에 관한 메시지를 더 많이 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McCabe, Ricciardelli, & Ridge, 2006) 외모의 의미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지적 틀인 신체상 투자를 통해 신체상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고 습득할 기회가 더 많으므로 신체상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투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체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체상 투자에 관한 연구, 이에 대한 성차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신체상 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영향 요인인 신체상 평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신체상 투자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체질량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신체상 평가,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 관심도 지각,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이 신체상 투자 정도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신체상 투자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신체상 평가가 더 부정적이고, 우울 수준이 높으며, 부모와 친구의 외모관심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외모가 개인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우울 수준이 높으며 그에 따라 부정적인 인지적 편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나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외모에 중점을 둔 자기 평가 방식을 내재화하고 채택하는 경향이 크며 그렇게 내재화된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Presnell, Bearman, & Stice, 2004)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상 투자가 높을수록 외모와 관련된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기억을 더 잘 하게 되며,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외모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불만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Altabe & Thompson, 1996; Cash & Labarge, 1996; Hargreaves & Tiggemann, 2002)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신체상 투자에 대한 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 및 친구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집단에서는 우울과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이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변수였고 여자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어머니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지각, 친구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지각, 외모 관련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이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변수였다.

신체상 투자에 대한 예측변수들 중에서 심리적 특성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변수였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우울만 신체상 투자를 의미 있게 예측했다. 자아존중감 영향의 남녀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익숙하다는 객체화된 신체 자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의 성차(McKinley & Hyde, 1996)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더 많이 감독하고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하며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외모 관련 경험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모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추후에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어머니와 친구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지각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신체상 투자를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수였다. 이 결과는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취약하다는 보고(Steen, Wadden, Foster, &

Andersen, 1996)와 일관되며 외모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문화적 환경에 기인하는(Grogan, 2006)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아버지의 외모관심도에 대한 자각은 신체상 투자에 대한 의미 있는 예측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소년 자녀의 외모 관련 가치관 형성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McCabe & Ricciardelli, 2000; Ricciardelli & McCabe, 2001; Wertheim, Mee, & Paxton, 1999)에서 청소년의 신체상 관련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에 비하여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남녀 모두에서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대중매체 메시지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중매체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내재화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경로라고 보고한 선행연구(Sands & Wardle, 2003; Tiggemann, 2003)의 보고와 일관된다. 특히 대중매체는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제시하며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일반화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대중매체가 지닌 권위로 인해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모 관련 가치관을 건전하게 형성할 수 있으려면 대중매체가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외모의 문제를 편견 없이 다루는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내리기 어렵다. 예를 들면 우울이 신체상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상 투자로 인해 신체상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경우 신체상 평가가 날씬함과 더불어 근육발달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육발달에 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셋째, 신체상 투자를 예측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으나 이 변수들이 신체상 투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신체상 문제가 여자 청소년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남자 청소년의 신체상 문제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상 평가 및 신체상 투자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신체상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신체상과 관련된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의 주요 영향 요인인 신체상 평가(신체불만족)와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신체상 평가의 예측 변수로서 중요성을 갖는 신체상 투자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문제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신체상 관련 연구가 여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신체상 태도에서의 성차에 대해 논의하고 신체상 관련 문제는 남녀 청소년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 ■ 참고문헌

- 권석만(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갑숙, 강연정(2007). 여자청소년의 신체관련변인, 자존감, 내적통제력이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77-87.
- 김영지, 김희진, 김진숙, 김진호, 안재희, 이경자(2008). **국제 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III: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숙, 이미숙(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25(5), 957-968.
- 박지현, 최태산(2008).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117-129.
- 보건복지가족부(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심승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이상선, 오경자(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상선, 오경자(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91-106.
- 이상선, 오경자(2005).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거식 행동과 폭식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91-813.
- 이수현, 현명호(2001). 여중생의 비만도와 신체상 만족도 및 폭식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

- 강, 6(1), 195-207.
- 장희순, 김태련(2006).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57-83.
- 정안숙(2003). 가족 및 또래관계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반사회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은(2004). 여자 청소년들의 비만도, 비만수준에 대한 자기인식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1), 129-140.
- 조영미(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ltabe, M., & Thompson, J. K.(1996). Body image: A cognitive self-schema construc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171-193.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urrows, A., & Cooper, M.(2002). Possible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s in overweight pre-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6, 1268-1273.
- Button, E. J., Loan, P., Davies, J., & Sonuga-Barke, E. J. S.(1997). Self-esteem, eat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hort of schoolgirls aged 15-16: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1, 39-47.
- Cash, T. F.(2002).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 clinical practice* (pp. 38-4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h, T. F., & Labarge, A. S.(1996).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 Schemas Inventory: A new cognitive body image assess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37-50.
- Cash, T. F., Melnyk, S. E., & Hrabosky, J. I.(2004). The assessment of body image investment: An extensive revision of the appearance schemas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 305-316.
- Davison, K. K., & Birch, L. L.(2002). Processes linking weight status and self-concept among girls from ages 5 to 7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735-748.
- Fisher, S.(1990). The evolution of psychological concepts about the body.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pp. 3-20). New York: Guilford Press.
- Furnham, A., & Calman, A.(1998). Eating disturbance, self-esteem, reasons for exercising and body weight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6, 58-72
- Gilbert, P.(2002). Body shame: A biopsychosocial conceptualisation and overview, with treatment implications. In P. Gilbert & J. Miles (Eds.), *Body shame: Conceptualisation, research and treatment* (pp. 3-54). New York: Routledge.
- Gowers, S. G., & Shore, A.(2001). Development of weight and shape concerns in the aetiology of eating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 236-242.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6.
- Grogan, S.(2006). Body image and health: Contemporary perspectiv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523-530.
- Hargreaves, D., & Tiggemann, M.(2002). The role of appearance schematicity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body dissatisfa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24.
- Hargreaves, D., & Tiggemann, M.(2003). the effect of "thin ideal" television commercials on body dissatisfaction and schema activ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 367-373.
- Harter, S.(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Plenum.

- Keel, P. K., Fulkerson, J. A., & Leon, G. R.(1997). Disordered eating precursors in pre- and early adolescent girls and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203-216.
- Keery, H., van den Berg, P., & Thompson, J. K.(2004). A test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Body Imag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1*, 237-251.
- Kostanski, M., & Gullone, E.(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255-262.
- Lawrence, C. M., & Thelen, M. H. (1995). Body image, dieting, and self-concept: Their relation i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 41-48.
- Levine, M. P., & Smolak, L.(2001). Body image in children. In J. K. Thompson (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in youth: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pp. 41-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Cabe, M. P., Ricciardelli, L. A., & Ridge, D.(2006). "Who thinks I need a perfect body?" Perceptions and internal dialogue among adolescents about their bodies. *Sex Roles, 55*, 409-419.
- McFarlane, T., McCabe, R. E., Jarry, J., Olmsted, M. P., & Polivy, J.(2000). Weight-related and shape-related self-evaluation in eating-disordered and non-eating-disordere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328-335.
- McKinley, N. M., & Hyde, J. S.(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endelson, B. K., Mendelson, M. J., & White, D. R.(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 90-106.
- Ohring, R., Graber, J. A., & Brooks-Gunn, J.(2002). Girls' recurrent and concurrent body dissatisfaction: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ver 8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404-415.
- Phares, V., Steinberg, A. R., & Thompson, J. K.(2004). Gender differences in peers and parental influences: body image disturbance, self-wor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21-429.
- Presnell, K., Bearman, S. K., & Stice, E.(2004). Risk factors for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A prospec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6*, 389-401.
- Pruzinsky, T., & Cash, T. F.(2002). Understanding body imag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 clinical practice* (pp. 3-12). New York: Guilford Press.
- Ricciardelli, L. A., & McCabe, M. P.(2001). Self-esteem and negative affect as moderators of sociocultural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strategies to decrease weight, and strategies to increase muscles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Sex Roles, 44*, 189-207.
- Sands, E. R., & Wardle, J.(2003). Internalization of ideal body shapes in 9-12-year-ol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3*, 193-204.
- Schutz, H. K., Paxton, S. J., & Wertheim, E. H.(2002).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1906-1937.
- Shroff, H., & Thompson, J. K.(2006).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A replication with adolescent girls. *Body Image, 3*, 17-23.
- Smolak, L., Levine, M. P., & Thompson, J. K.(2001). The us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with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216-223.
- Steen, S. N., Wadden, T. A., Foster, G. D., & Andersen, R. E.(1996). Are obese adolescent boys ignoring an important health ris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 281-286.
- Stice, E.(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 Bulletin*, 128, 825-848.
- Stice, E., & Shaw, H.(2003). Prospective relations of body image, eating, and affective disturbances to smoking onset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129-135.
- Stice, E., & Whitenton, K.(2002). risk factors for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 669-678.
- Striegel-Moore, R. H., & Cachelin, F. M.(1999). Body image concerns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 girl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N. G. Johnson, M. C. Roberts, & J. Worell (Eds.), *Beyond appearance: A new look at adolescent girls* (pp. 85-10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A., & Kent, G.(2001). Adjusting to disfigurement: Processes involved in dealing with being visibly differ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663-682.
- van den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 J.(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46-51.
- Vander Wal, J. W., & Thelen, M. H.(2000). Predictor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in elementary-age school girls. *Eating Behaviors*, 1, 105-122.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1980). Children's symptoms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s*, 168, 736-740.
- Wertheim, E. H., Paxton, S. J., & Blaney, S.(2004).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In J. K. Thompson (Ed.), *Handbook of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pp. 463-494). New York: Wiley.

---

접 수 일 : 2010년 1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24일